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5·18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민주화운동이다.”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기념식 이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대통령의 (5·18 기념사) 말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과 관련해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와 관련해선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며 “당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평했다.야권이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다른 말씀을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여러 번 천명했으니까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